



봄날을 맞은 완주는 계절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봄꽃 절경부터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 삼림욕, 천주교 성지 순례까지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송광사에서 소양면 소재지까지 도로에는 40년생 벚나무들이 가로수로 심어져 봄을 맞아 연분홍빛 터널을 이루는데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높다. 마을 모양이 발공기를 닮아 붙여진 공기마을에는 86만여㎡ 달하는 넓은 공간에 10만 여 그루의 편백나무가 빼곡히 자라는데, 45년에 걸쳐 조성한 인공림임에도 오솔길을 걸으며 만나는 숲의 깊이가 엄청나다. 천주교 순례여행지인 천호성당에 있는 천호성당은 단아한 한옥 양식에 서구식 교회 건축을 가미해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완주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벚꽃길 걸으며 봄 감상...성지의 고즈넉함 만끽

〈천호성지〉

10만 그루 상관편백나무숲서 피톤치드 힐링
차분한 분위기의 천호성지...한가롭게 물명도
경천애인 농촌사랑학교, 다양한 생태관광 제공

오솔길을 걷는 매력이 남다르다. 영화 '최종병기 활'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절집 예쁜 송광사와 제철 만난 벚꽃터널

종남산 자락에 자리잡은 송광사는 종종 순천 조계산의 승보사찰 송광사와 혼동하곤 한다. 공교롭게 한자도 송광사(松廣寺)로 같다. 완주 송광사는 도량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절집이 예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일주문에서 바라보면 금강문과 천왕문, 대웅전까지 한 눈에 들어오는 가람 배치가 인상적이다. 인근에는 수령이 제법 오래된 벚나무 가로수로 이루어진 벚꽃터널이 여러 곳 있다. 소양면 소재지에서 송광사까지 1.6km의 벚꽃터널이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소양천 지천을 따라 조금 내려오면 못지않은 다른 벚꽃터널도 만날 수 있다.

●천호성지, 차분하게 나를 돌아본다

천호성지는 조선 후기 병인박해(1866년) 당시 천주교도들이 은거했던 곳이다. 순교 순례지로 해마다 많은 신자들이 찾는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마을 전체에 감도는 평화롭고 경건한 분위기 덕분에 여타 관광명소와 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다. 아담한 실로암 연못에선 벤치에 앉아 요즘 유행인 '물멍'을 하기 좋다. 연못에서 이어진 로사리오 동상 대숲길은 바람에 흔들리는 댓잎 소리만 들리는 적막함이 차분하게 마음을 진정시켜준다.

이곳의 천호성당과 같은 관내인 되재성당은 한옥 양

식을 바탕으로 서구식 교회 건축을 접목해 색다른 느낌을 준다. 특히 되재성당은 남녀가 유별하던 당시 풍습에 따라 남녀좌석을 칸막이로 나눈 점이 이채롭다.

●경천애인 농촌사랑학교의 강동열차

경천애인 농촌사랑학교는 시골살이의 다양한 체험과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이다. 마을에서 1km정도 남쪽으로 가면 편백숲이 있고, 마을 가운데를 흐르는 1급수인 구룡천 가에는 체육공원이 있어 축구, 농구, 배구, 족구 등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체험하기를 권하는 것은 강동열차다. 드림통을 개조해 객차로 만들어 전기카트가 끄는데, 보기와 달리 제법 속도감이 있다. 벚꽃 화사한 구룡천 가로수길을 지나 마을을 돌아나오는 20여분 남짓한 '드라이브 코스'가 꽤 재미있다.

인접한 화산면의 경천 저수지는 폭 1km, 길이 3~4km의 규모가 큰 저수지인데 갈매봉 등산로 초입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탁 트인 시야로 인해 가장 멋지다

한편, 완주군은 2021~2022년을 '완주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명소를 따라가다 보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펼쳐진다는 의미를 담은 '바람따라 완주따라'를 슬로건을 내걸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 방문의 해를 계기로 청정자연과 고품격 문화감성, 원조 로컬 푸드를 맛보는 음식감성 여행지 완주를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내 으뜸관광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제주항공, 객실승무원이 운영하는 '기내식 카페' 오픈

5월부터 AK&홍대서 3개월간 판매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은 5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 홍대 지역의 AK&홍대 1층에 제주항공 승무원이 운영하는 기내식 카페 '여행의 행복을 맛보다(Jejuair on the table)'를 오픈한다.

이곳에서는 불고기덮밥, 흑돼지덮밥, 파애플백, 승무원 기내식 등 기내식 메뉴 4종을 객실 승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한다. 커피를 포함한 각종 음료도 승무원들이 제조해 판매한다. 이를 위해 기내식 카페를 운영하는 10명의 객실승무원은 제주항공의 자회사 '모두락' 카페에서 커피를

비롯한 각종 음료제조 교육을 받았다.

카페에서는 기내식, 음료 외에 제주항공 굿즈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타로카드, 풍선 서비스 등 객실승무원의 기내 특화서비스 체험 이벤트도 있다.

제주항공측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승무원이 메뉴를 제공하는 기내식 체험 카페"라며 "해외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여행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이 '기내식 카페' 준비를 위해 자회사 모두락 카페에서 홀 서빙 사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제주항공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9일(금) 음력: 2월 28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교재비를 많이 쓰게 된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의외의 황재수가 있다.	시시한 일들로 인해 행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며 곤란만 야기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급진적으로 충분치 못해도 사치스런 생활을 버리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늘은 이득이 발생하면 바로 손을 떼어야 한다.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물이 밑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심사숙고해서 경계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치해야 할 때는 정치해야 한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띠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날이다.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두 곳의 사업장이면 한 곳으로 합하면 좋겠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되지 않는 날이다. 벽산 일로 고역을 치른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격류를 건너 내려면 굳센 마음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문제에만 집중하여 일의 부담을 더는 것이 좋겠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옛날 나라에서 제왕을 올려야 했던 날이다. 즉, 현재의 번영이 하늘이나 조상의 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사업인에게는 이익이, 직장인에게는 승진이 있는 날이다.						

아이더 '아이더로드 4500' 시즌2 전개

4500km 코리아둘레길 걷기... '트랭글' 통해 참여 가능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는 4500km 코리아둘레길을 걷는 '아이더로드4500'(사진) 캠페인 시즌2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둘레길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하고 즐거운 걷기 여행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GPS 기반의 운동 인증 애플리케이션 '트랭글'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트랭글 앱 내 코스북을 통해 다양한 걷기 코스를 확인하고 자신의 걷기를 기록, 인증, 공유할 수 있다.

아이더로드4500의 공식 코스는 시즌1과 동일하게 동해안 '해파랑길'과 남해안 '남파랑길'이다. 일정 코스 이상(1코스, 3코스, 10코스, 15코스)을 완주하는 참가자들에게 할인쿠폰, 굿즈 티셔츠, 배낭, 신발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15코스를 완주한 이들에게는 완보 기념 메달이 증정된다.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는 '아이더로드4500 사진공모전'도 매일 진행된다.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봄놀이' 온라인 이벤트

서울관광재단은 9일부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에서 4월 동안 '특별한 봄놀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 명동의 글로벌문화체험센터는 문화체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내외국인 문화교류를 위한 외국인 지원시설이다. 이벤트는 서울의 관광지, 문화, 음식 등을 주제로 운영되며 SNS 공유 및 해시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험 키트,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한다. 참여방법은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한다.

이삼걸 강원랜드 신임 대표이사 8일 공식 취임



이삼걸(사진) 강원랜드 신임 대표이사가 8일 오전 강원도 정선군 고한 강원랜드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삼걸 대표는 경상북도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국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차관보에 이어 제2차관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취임식에서 "폐특법(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이 통과되어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지역민들과 상생하며 강원랜드 100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날씨				9일(금)			
서울	0/0 6 18	인천	0/0 7 16	춘천	0/0 4 17		
강릉	60/0 5 13	대전	0/0 4 18	전주	0/0 4 19		
광주	0/10 6 20	대구	0/0 6 15	부산	0/0 9 15		
창원	0/10 7 16	제주	20/0 11 16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